



새마을금고중앙회, 성성식 이사 등 임원 선출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최근 충남 천안 MG인재개발원에서 개최된 제77차 대의원회에서 새마을금고중앙회 상근이사와 금고 이사장인 이사 선출을 마쳤다고 25일 밝혔다. 성성식 이사(왼쪽부터), 박무환 이사, 이상화 이사, 김민 새마을금고중앙회장, 황길현 전무이사, 최훈 지도이사, 임진우 신용공제대표이사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DB생명, 데이터 기반 보험 디지털 혁신 앞장

DB생명은 지난 21일 DB Inc., LG CNS와 전략적 미디어 데이터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3사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데이터 기반의 보험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민호식 DB생명 디지털혁신본부 본부장(왼쪽 두번째)과 이관복 LG CNS 미디어데이터사업단 단장(왼쪽 첫번째), 김상동 DB Inc. 신기술추진실 상무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DB생명



동서식품, 다문화 가정 아동에 행복상자 전달

동서식품은 23일 서울 마포구 도화동 동서식품 본사에서 다문화 가정 아동(중도입국청소년)을 위해 학용품, 도서 등을 담은 행복상자를 만드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동서식품 임직원들은 각 아동들이 갖고 싶어 하는 도서를 사전에 파악해 손수 만든 이름표와 함께 상자에 담아 의미를 더했다. /동서식품



한신대, '경기도 평생배움대학 GCC 사업' 선정

한신대학교는 최근 '2024 경기도 평생배움대학 GCC 새롭고 캠퍼스' 사업(이하 경기도 평생배움대학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사업 선정으로 한신대는 '한신대와 함께하는 경기도 평생교육 이G, 옛GI'라는 프로그램으로 3월부터 시작해 12월까지 10개월 동안 총 100시간에 걸쳐 수강생 7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이를 위해 교수·강사 등 교육인력 36명이 투입된다. /한신대

인사

◆국토교통부 ◇국장급 승진 △주거복지정책관 이기봉 △외교부 중국 주재관 오원만

부음

▲김명승씨 별세, 김일환(전 광주일보 편집국장·전무이사)씨 부친상 = 24일 오후, VIP장례식장 1층 101호, 발인 27일 오후 12시 30분, 062-521-4444

삼성전기, 광학인재 초청... '초일류 테크 부품사' 비전 공유

렌즈분야 T&C 포럼

기술 트렌드 제시... 혁신기술 토론 이태곤 부사장 등 임원들 현장소통

삼성전기가 광학 인재들을 초청해 미래를 함께 하자고 요청했다. 삼성전기는 23일 수원사업장에서 렌즈분야 T&C 포럼(Tech & Career Forum)을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행사는 렌즈 및 광학 분야 연구를 하고 있는 이공계 석·박사급 인재 40여명을 대상으로 직접 소통하고 미래 비전을 소개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광학통신솔루션사업부장인 이태곤 부사와 렌즈팀장 김동진 상무, 조용주 마스터 등 핵심 임원들이 동석했다.

삼성전기는 글로벌 우수 인재 발굴을 확대하고 삼성전기 채용 브랜드를 강화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광학 관련 시장에서 우수 인재 확보와 양성이 중요한



삼성전기 렌즈분야 T&C 포럼(Tech & Career Forum)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미래 경쟁력이라며, '초일류 테크 부품회사' 도약을 위해 인재 확보와 육성에 지속 투자 중이라는 설명이다. 삼성전기는 6시간에 걸쳐 라인투어 등으로 회사를 소개하고 기술 트렌드를 제시, 렌즈 기술분야별 토론 등 프로그램까지 구성했다. 행사에 참여한 학생들은 ▲광학 설계 ▲광기구설계 ▲광학코팅 등 혁신기술에 대해 삼성전기 임직원들과 토론할 수 있었던 테크세션을 가장 인상적인 코너로 꼽으며 "기업의 시각에서 바라본 렌즈/광학 관련

기술트렌드와 시장 소비자들의 요구 등을 알게되어 좋은 경험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포항공대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이형우씨는 "내가 연구하고 있는 분야가 기업에서 적용되는 있는 것을 체험해 볼 수 많은 동기부여가 되었다"며 "돌아가 연구를 무사히 마쳐 광학 관련 기술력 강화에 기여하고 싶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삼성전기 광학통신솔루션사업부장 이태곤 부사장은 "급변하는 개발 현장에서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재"라며 "본 행사를 통해 우수한 학생들이 삼성전기와 소재·부품 분야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삼성전기는 소재·부품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 인재를 양성하고 확보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포항공대와 채용 연계형 인재양성 협약을 체결해 소재·부품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및 과제를 연구하고 있다.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르노코리아, 필립 베르투 프랑수아 대사 부산공장 방문

부산공장 주요시설 직접 확인 '오로라 프로젝트 기대감 커져'

주한 프랑스 대사관 인사들이 르노코리아자동차 '오로라 프로젝트'에 높은 기대감을 드러냈다.

르노코리아는 23일 부산공장에 프랑수아 대사관 주요 관계자들을 초청했다고 25일 밝혔다.

필립 베르투 주한 프랑스대사와 아들린-리스크브 경제통상대표부 대표, 마티유 르포르 상무참사관 등이 초청을 받았다. 부산공장 주요 시설을 직접 둘러봤다.

르노코리아 부산공장은 프랑스 대표기업인 르노그룹 글로벌 허브로, 하이엔드 중형과 준대형 자동차 개발 및 생산을 담당하고 있다. 르노그룹 공장 중 전세계에서 가장 높은 품질 수준을 자랑한다.



르노코리아 스테판 드블레즈 사장(왼쪽)과 필립 베르투 주한 프랑스대사가 수출형 XM3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특히 르노코리아는 차세대 친환경 신차인 '오로라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올 하반기 하이브리드 중형 SUV를 출시할 예정으로, 그 밖에 다양한 모델을 생산해 글로벌에 공급할 예정이다.

필립 베르투 주한 프랑스대사는 "공장 내부에 태극기와 프랑스국기

가 함께 걸려 있는 모습은 르노코리아가 대한민국과 프랑스 양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강하게 상기시켜 준다"며, "놀라운 성과를 내고 있는 부산공장을 직접 경험하며 르노코리아의 오로라 프로젝트에 대한 성공 기대감도 함께 높아졌다"고 말했다. /김재용 기자

삼육대, 제해종 총장 선임

삼육대학교 제 16대 총장에 제해종(사진) 신학과 교수가 선임됐다. 학교법인 삼육학원은 23일 이사회를 열고 제16대 삼육대 총장으로 제해종 교수를 선임했다고 25일 밝혔다.

제 신임 총장은 1967년생으로 삼육대 신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앤드류스대 대학원에서 신학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전공은 조직신학이다.

2012년 삼육대 신학과 교수로 임용됐으며, 이후 교목처장, 생활교육원장, 대학원 신학과장, 신학과장, BFFL 센터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하며 학교 발전을 위해 헌신해 왔다.

제 신임 총장의 임기는 오는 3월 1일부터 4년이다. /이현진 기자 ihj@



효성중, 우태희 대표이사 선임 추진

내달 주총서 선임 안건 논의

효성중공업이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사진)을 대표이사로 영입했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효성중

공업은 다음달 14일 예정된 주주총회에서 우 부회장을 사내이사(대표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다룬다. 주총에서 안건이 통과되면 우 부회장은 2019년부터 효성중공업의 중공업 부문을 맡아 온 요코다 타케시 대표



의 후임으로 회사를 이끌게 된다. 1984년 행정고시(27회)를 통해 공직에 입문한 우 부회장은 2016~2017년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으로 에너지 정책을 담당한 바 있다. /김재용 기자

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김형순 신임 이사장 취임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제 10대 이사장에 김형순 뉴그린 대표(사진)가 선임, 취임했다.

신임 김형순 이사장은 25년이 넘는 업력을 토대로 산업폐기물 소각 업계에서 선·후배간 교류 뿐만 아니라 정부, 국회 등과 업계 발전을 위해 '제2의 도약'을 이끈다는 포부다.

김 이사장은 "그동안 혐오·기피 시설로만 치부되고 있던 소각 시설의 굴레를 깨고 대의명분을 갖고 국가 기반시설로서의 존재가치를 알리는 데 더욱 매진하겠다"고 전했다. /김승훈 기자 bada@



포스코, CDP '리더십 등급' 획득

기후변화대응·수자원관리 성과

포스코가 CDP(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로부터 ▲기후변화대응 ▲수자원관리 부문에서 각각 최고 수

준인 리더십(A-) 등급을 획득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CDP 평가 두 부문에서 리더십 A- 등급을 동시에 획득한 철강사는 국내에서 포스코가 유일

하다.

포스코는 CDP에 2003년부터 기후변화 대응 활동과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를 자발적으로 공개하고 평가서를 제출해 오고 있으며, 2016년부터는 수자원 관리 활동과 물 회계 내역도 제공하고 있다. /양성운 기자 ysw@